

# 廣州 倉谷里 李朝墳墓와 副葬品

池 健 吉

1

서울 城東區 千戶洞에서 廣州大團地로 뻗는 鋪裝道路를 따라 南쪽으로 9 km 가량 가면 원점으로 陸軍矯導所가 있고 이 矯導所 北쪽 담을 끼고 다시 2 km 를 東行하면 陸軍綜合行政學校가 位置한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倉谷里—俗稱·창말—에 이르게 된다.

倉谷里 一帶는 現在 100 戶 남짓되는 民家가 密集해 있는 山麓地帶로서 마을 東쪽으로는 淸涼山(海拔 495 m)을 頂峰으로 300 m 以上の 連峰이 南北으로 뻗어 있고 마을 西便에 있는 陸軍綜合行政學校敷地로부터 東南方向으로 4~6 m 높이의 조그만 언덕이 民家사이를 뚫고 뻗어가다 마을 가운데에서 끊어지고 있다.

赤褐色 砂質粘土와 風化된 花崗岩盤으로 形成된 언덕 위에는 「아카시아」等 落葉樹와 雜草가 우거져 있으며 지금까지는 完全한 封土를 갖는 2基의 墳墓가 墓前의 石人과 함께 保存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미 封土는 缺여 없어져 形態를 분간할 수 없지만 근대군대 넘어져 있는 石人들로 보아 一帶에는 相當數의 李朝墳墓가 散在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雨水로 因한 封土의 自然流失 외에도 行政學校에서 흘러내리는 下水가 이 언덕의 西南쪽 기슭을 흐르기 때문에 해마다 雨期가 되어 流量이 분계 되면 언덕의 側面이 점차 깎여 나가 지금은 높이 4~5 m 의 벼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封土가 流失된 채 아무런 標識도 없이 地下에 묻혀 있던 灰槨 3개가 달로 前에 내린 豪雨로 周圍의 土砂가 깎겨 나가 그 일부가 벼랑에 露出되었던 것이다.

각기 7 m 가량의 間隔으로 長軸을 거의 南(北間(20度 偏西))에 두고 露出되었던 3개 가운데 中央의 1個는 豪雨當時 이미 바닥에 떨어져 破損되어 버렸고 지금은 2個만이 槨側面을 드러낸 채 간신히 벼랑에 붙어 남아 있었다(圖 5)

이 調査는 現地 住民의 緊急申告를 받고 1971年 6月 16일부터 사흘동안 實施한 것이다.

2

벼랑에 남아 있던 2個 중에서 南쪽에 있는 灰槨은 그것을 除去함으로써 생긴 水害의 念慮때문에 이를 말리는 住民들의 反對로 우선 北쪽의 1個 만을 調査하게 되었다.

赤褐色 砂質粘土로 이루어진 언덕의 表土下 40 cm 를 파 들어가서 나타나기 始作한 土擴은 그 西半部가 깎여나가 東半部의 輪廓만을 把握할 수 있었다. 擴壁을 찾아내기 前에 우선 擴壁面에서 約 20 cm 두께의 餘裕를 남기고 擴內의 埋沒土를 除去해 내려가 槨上面에 이르게 되었다. 比較的 乾燥한 黃褐色 砂質粘土로서 擴內部를 메웠으며 灰槨上面에 이르기까지 同質의 埋沒土 이외에 별다른 痕跡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擴壁을 露出시키기 위해 처음 남겨둔 20 cm 두께의 나머지 埋沒土를 벗겨나가면서 擴壁을 찾아 槨上面에 이르게 되었다. 擴이 始作된 윗면으로부터 55 cm 下 東壁 中央部에서 擴壁을 뚫고 마치 壁櫛같은 式으로 만든 副槨이 나타났을 뿐 槨上面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狀態는 나타나지 않았다(圖 6)

塋 塋壁의 西半部는 이미 流失되고 東壁과 南·北壁의 一部만 남았으나 灰槨의 크기와 함께 지금 남아있는 壁面의 狀態로 보아서 塋의 原來形態는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即, 東西의 幅 110cm, 南北의 長 230cm의 長方形이었을 것이고 土塋 上端에서 灰槨 上面까지는 125cm, 現 灰槨의 높이가 110cm, 따라서 槨을 設置하기 前의 塋全體 깊이는 235cm였음을 알 수 있었다. 塋壁는 나타난 三面 모두가 正確한 垂直面을 이루고 있었다.

灰槨·木棺 土塋의 四壁에 接하여 設置된 槨은 三物灰로써 여러 물체 다져진 것이었다. 槨의 크기는 塋壁面의 不整으로 자연 各邊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지만 大略 東西의 幅 110cm, 南北의 長이 230cm 되는 長方形에 높이가 110cm였다. 開封後 實測된 槨壁의 두께는 圖面에 나타난 것처럼 上面은 29cm가 되었고 四壁의 두께는 北 21cm, 南 17cm, 西 13cm, 東 15cm의 각각 다른 두께를 보였다. 槨의 内部 바닥은 土塋의 바닥 그대로였으며 灰 같은 것으로 特別히 處理한 痕跡은 없었다. 다만 바닥에서 12cm 위로는 南北端 모두 壁面에서 3cm 가량이 물러나 있었다. 이와 같은 狀態는 槨內의 天井部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天井 面下 10cm에 남아있는 棺材의 接着痕을 境界로 그 윗部分이 北端에서는 壁面보다 0, 5cm가량 튀어나왔으나 南端에서는 1cm가 물러나 있다. 이와 같이 槨內의 天井部와 바닥에 나타난 壁面의 狀態로 보아 分明히 거기에는 무엇이 덮히고 깔렸으리라 생각되지만 木質의 腐散이甚하여 이를 推定할만한 決定的 根據는 아무 것도 없었다. (圖 8) 오직 後述하는 同類의 다른 灰槨墓에서 보는 바와 같은 外棺의 痕跡이 아닐까 推測될 뿐이다. 腐敗된 棺材 사이에서는 北枕이 確實한 頭蓋骨과 함께 약간의 遺骨片이 나왔으나 形態를 區分할 수 없을만큼 섞여 있었다.

副槨 塋의 東壁 上端 中央으로부터 55cm下에 塋壁를 뚫고 設置한 長方形의 壁槨式 副槨이 있는데 여기에 砂鉢形 뚜껑을 덮어 白磁 白磁항아리 一點이 左便 구석에 놓여 있고 그 右側으로는 小形 白磁

明器類一五種三四點이 가지런히 安置되어 있었다. (圖 7) 바닥은 27cm 깊기로 편평한 面을 이루었으며 바닥 表面에는 붉은 빛이 나는 有機物이 깔렸던 痕跡으로 보아 副葬品을 安置하기 前엔 땅 위에 織物이나 紙類等을 깔았던 것이 分明하다. 入口의 左右側面과 天井 上端部에서는 턱을 만들어 꺾여 들어가 있으며 天井部는 안쪽으로 彎曲된 채 바닥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副槨의 入口에 턱을 만든 것은 副葬品을 安置시킨 후 여기에 簡單한 遮斷施設을 하기 爲한 것으로 느껴진다. 即, 塋內를 훑으러 메울 때 이 副槨 안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板子 같은 것으로 막아둔 것 같은 形狀이나 調査 當時에 그럴만한 뚜렷한 痕跡은 찾지 못했다.

### 3

副葬品의 配列狀態는 그것들이 비록 小形器이지만 차곡차곡 쌓아놓은 품이 매우 整頓된 狀態이다. 左便 구석으로 大形의 항아리가 놓이고 그 右側에 小形明器가 대략 三列로 配置되어 있다.

入口 쪽에서부터 第一, 二列의 右半은 같은 形態로 組를 이루는 皿形器와 盃形器들이 있고 左側, 항아리의 옆에는 받침접시를 갖는 托盞, 盃形器와 함께 形態가 다른 壺形器二點이 二列로 놓여 있다.

副槨의 안쪽, 第三列에는 男女偶 五點이 모두 入口 쪽으로 등을 돌리고 一列로서 있으며 그 右側에 壺形器一點이 놓여 있었다. 白磁 항아리와 뚜껑을 除外한 小形明器는 한결같이 乳白色의 色調를 띠고 있었다. (圖 9)

가, 白磁 항아리와 뚜껑

① 白磁 항아리 一點

高一三cm 口徑一一,五cm 胴徑一九,五cm 臺高一,二cm 施釉 狀態가 고르며 器 全面에 얇은 灰青色을 띠고 있으나 器腹의 一

部가 노르스름하게 變色되었다。胴體가 알맞게 불려있고 口緣部는甚하게 外反되었다。內傾한 굽다리 밑에는 모래가 많이 묻어있고 全體의 흙비결은 不實하여 근데 근데 氣泡자국이 많다。器腹部에 굽은 모래알이 섞여 들어가 생긴 구멍이 나 있어 實用器로 만들었으나 使用하지는 못하고 副葬用 明器로서 쓰여진 것 같다。

② 뚜정 一點

高 四 cm 口徑 一六、五 cm 臺高 一 cm

넓게 퍼진 砂鉢形器로서 白磁 항아리 위에 덮여 있었다。白磁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굽은 灰青色을 띠고 있으나 器外面의 一部가 外緣에서부터 變色되었다。

器外面에 比해 內面의 施釉狀態는 거칠고 투박하며 內傾된 굽다리 밑에는 가는 모래알들이 묻어 있다。그릇 全體가 중간에서 꺾인 채 약간 이그러졌다。여기에서는 항아리의 뚜정으로 쓰였으나 뚜정아닌 砂鉢같은 獨立된 容器로서도 使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小形 明器類

① 盞形器와 받침 一組

盞形器 口徑 五、五 cm 高 一、七 cm

받침 口徑 八、五 cm 高 一、五 cm

口緣部가 直立한 盞形器로서 外緣의 아래에 一、五 mm 幅의 凹帶가 둘러 있다。

굽이 없이 바닥은 밋밋하나 가운데에서 움푹 들어갔다。

받침은 器緣上部가 두툼하게 둘러있고 그 안 쪽으로는 盞形器가 놓일 수 있도록 오목하게 낮아 들어갔다。

밑바닥에 가는 모래가 많이 묻어 있다。

② 盃形器와 받침 一組

盃形器 口徑 三、五 cm 高 二、三 cm

받침 口徑 四 cm 高 〇、六 cm

內實의 굽이 뚜렷하며 直立한 口緣部에는 깨진 흙이 있다。받침은 뒷면이 外緣部가 가까이에서 약간 낮아진다。아랫면은 外緣과 굽사이에서 턱이 있고 굽 안쪽이 약간 파였다。

③ 皿形器 三點

로개진 三點中 위의 二點은 形態와 크기가 같으나 아래의 一點은 그 보다 器面은 좁지만 두껍다。三點 모두 內傾한 굽을 갖추었으며 굽 밑은 모두가 內實해 있다。

上·中 口徑 四、八 cm 高 一 cm

下 口徑 四、四 cm 高 一、二 cm

④ 皿形器 四點

口徑 四、七 cm 高 一、二 cm

前記한 三點의 皿形器와 形態가 같다。

크기가 서로 다른 앞의 것과는 달리 四點이 모두 그 形態와 크기가 같다。

⑤ 盃形器 一點

口徑 七、二 cm 高 三、五 cm

약간 內傾한 굽다리에서부터 S字形 曲線을 이루며 올라가 口緣에 이르러서 外反하였다。器內에 물레 자국이 뚜렷하고 施釉狀態가 거칠다。

다음의 盃形器와 함께 形態와 크기로 보아 充分히 實用器로 使用할 수 있을 것 같다。

⑥ 盃形器 一點

위의 것과 크기와 形態가 똑 같다。

⑦ 壺形器와 뚜정 一組

口徑 四、四 cm 胴徑 五、四 cm 全高 六、四 cm

약간 外反한 굽다리와 위가 좁고 아래는 벌어진 胴體를 갖추고 있다。

口緣部는 뚜정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 쪽으로 턱을 올렸으며 그 위에 복숭아 形態의 꼭지를 갖춘 뚜정이 얹혀 있다。뚜정 윗면은 꼭지를 中心으로 等間隔으로 二條의 同心圓을 둘러 三區로 나누어 저 各區間은

階段式으로 中央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진다. 胴體部の 施釉狀態는 매끄럽고 고르나 뚜정의 狀態는 그에 比해서 거친 便이다.

出土當時에는 뚜정이 벗겨져 있었다.

⑧ 壺形器 一點

胴徑四、五cm 全高四、三cm

뚜정을 갖춘 廣口壺의 形態이나 胴體와 뚜정이 한데 붙은 채 形態만을 갖추었다. 器腹이 가운데에서 적당히 볼러 있고 밑에 內傾한 굽이 달려 있으며 볼록한 뚜정에는 주관알 모양의 꼭지가 붙어 있다. 器全면에 물레 자국이 宛然하며 施釉狀態가 粗雜해서 乳白色의 胎土가 그대로 드러날 程度이다. 그나마 胴體의 下半身에는 전혀 釉藥이 묻어있지 않다.

⑨ 鉢形器 三點

한데 포개어진 三點中 가운데 一點만 크기와 形態가 다르고 上·下二點은 똑 같다. 二點 모두 口緣이 外反하고 굽은 아래의 一點만 굽안이 비어있고 나머지 二點은 內實해 있다.

上·下 口徑 四cm 高一、三cm

中口徑 三、八cm 高二cm

⑩ 鉢形器 三點

포개어진 三點의 形態가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제일 큰 것을 아래에 두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진다. 口緣部는 가운데 一點만 直立하고 上·下二點은 外反하였다. 굽도 가운데 一點만 直立하고 上·下二點은 內傾이며 굽안은 二點 모두가 內實하였다.

口緣 上 三、六cm 中 三、七cm 下 四、二cm

高 上 二、二cm 中 一、三cm 下 二、四cm

⑪ 鉢形器 二點

口緣의 外反程度와 크기가 약간 다르다. 아랫 것이 보다 施釉狀態가 좋고 色感도 鮮明하다. 굽은 위의 것이 內傾하였으며 아랫 것은 약간 外反하였다.

上 口徑 四cm 高一、三cm

下 口徑 四、一cm 高一、一cm

⑫ 皿形器 三點

三點이 모두 內實한 굽을 가지고 있으나 가운데 一點만 약간 外反하고 나머지는 內傾이甚하다. 가운데의 것은 전혀 釉藥이 발리지 않았다

口徑 上 四、八cm 中 四、四cm 下 四、三cm

高 上 一cm 中 一、二cm 高一、一cm

⑬ 壺形器와 뚜정 一組

胴徑 四、七cm 胴體高 一、四cm 全高 四cm

굽다리가 없는 平底의 壺形器로서 口緣部는 胴體의 어깨 부분에서 器內로 꺾여 들어갔다. 복숭아형의 꼭지를 단 圓盤形 뚜정이 덮여 있다. 全體의 施釉狀態가 곱고 下半身에 釉水裂이 나타나 있다.

⑭ 女偶 二點(圖11)

副柳의 안쪽에 女偶 二點과 男偶 三點이 등을 入口 쪽으로 돌린 채 가지런히 서 있었다.

女偶 二點은 얼굴의 表情만 약간 다를 뿐 形態와 크기는 거의 같다. 알맞게 살찐 탐스러운 얼굴에 어여머리를 올렸으며 양팔은 한데 모아 가슴 위로 치켜 올리고 있다.

허리로 부터 퍼져 내려온 下半身은 마치 긴 치마를 입은 形狀이다. 치마폭 以下는 省略해 버리고 그대로 副柳 바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빗맞게 處理해 버렸다. 얼굴 가운데를 높이 빗어 세운 후 코와 입의 形態에 맞춰 적당히 깎아 냈다. 눈과 눈썹은 따로 새겨넣지 않고 鐵砂로 써 그렸으며 팔과 머리털 部分도 鐵砂를 칠하여 짐볼게 色感을 나타냈다. 高 七、七cm

⑮ 男偶 三點(圖10)

女偶의 右側에 나란히 서 있었다.

상투를 틀어올린 머리 形態이며 女偶와 마찬가지로 코와 입을 表現하기 위해 얼굴의 가운데를 上下로 길게 突出시켜 깎아 냈고 눈과 눈썹, 머리털, 들어올린 팔등에도 마찬가지로 鐵砂를 발라 表現했다. 下半身의 形狀은 女偶와 똑 같다. 三點의 男偶 中에서 가운데의 것이 다른 二

點보다 크고 成形 솜씨와 풍기는 印象이 한층 洗練되어 보인다.  
高左・右六、七cm 中七、六cm

### 맺는 말

一九六九年 一〇월에 實施한 懷墓①의 遷葬과 一九七〇年 九月의 緩慶園②遷葬 때에 實見한 바에 依하면 二基가 모두 外棺을 만들어 그 안에 內棺을 安置하고 外棺의 周圍를 灰로 다진 灰槨墓의 形式이었다.

그러나 一九七〇年 四月 宅地造成中에 露出된 서울 西大門區 大甕洞의 豊壤趙氏墓③는 外棺은 없었으나 灰槨 위에 板木으로 槨의 뚜껑을 씌운 다음 灰로 다져둔 것이었다. 實見한 三柩가 모두 外棺을 設置하거나 或은 外棺이 없이 直接 灰槨안에 安置되어 있었고 또한 內棺과 外棺·灰槨사이에는 充分한 空間이 있어 아직 썩지 않은 內棺을 들어낼 수가 있을 程度였다.

따라서 本文中에서 말한 槨內의 天井部와 바닥에 남아있는 痕跡은 上記한 例로 보아 이곳은 따로 板木이 놓였던 部分이 아닐까 推測해 보고 싶다.

出土된 磁器類는 全體적으로 볼 때 精良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器面全體에 뚜렷이 남아있는 물레의 자국이나 胎土에 混入해 들이간 굵은 모래알, 그 밖에 그릇全體의 施釉狀態가 粗雜하며 어떤 것은 전혀 釉藥이 묻지 않은 것도 있다.

바닥면에 묻은 저저분한 모래알도 小形의 그릇을 만드는 過程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胎土의 成形過程에 들인 精誠에 비하면 그 뒷 손질이 거칠었던 것 같다.

이들 副葬品이 出土된 位置도 여기에서는 따로 擴壁面에 壁槨式으로 副槨을 만들었으나 이보다 時期的으로 分明히 앞선 서울 彌阿洞의 溫寧君墓④에서는 槨內部의 下足部에서 副葬品이 나오고 있다. 墓制樣式에서 多少 差異는 있지만 槨·槨內에 安置되어 오던 傳統的 副葬方式에서 벗어난 새로운 資料라 할 것이다.

이 墳墓의 年代를 決定지을만한 墓誌같은 資料는 없지만 勿論이나 出土된 白磁의 性格으로 미루어 墓의 築造時期가 大略 李朝中葉, 一六一七世紀 頃이 되리라는 推定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다만 李朝墓制의 한 資料로서 報告하는 것이며 類似한 資料가 蒐集되는 대로 墓制編年 乃至는 變遷史의 하나의 提示로서 參考해 보자는 것이다.

### 註

① 李朝九代 成宗의 元妃인 坡平 尹氏의 墓로서 現 慶熙大學校 附屬病院 後庭에 있던 것을 一九六九年 一〇月 二五日 西三陵으로 옮겨갔다.

墓誌石에 一四九七年(弘治一〇年)에 楊州로부터 옮겨 왔다는 記錄이 있다. 外棺안에 棺을 安置시키고 外棺周圍에는 다시 겹 外棺을 씌우고 灰槨을 만들었다. (圖1)

② 思悼世子의 生母인 曠嬪 全義李氏의 墓로서 現 延世大學校 學生館 맞은편에 있던 것을 一九七〇年 九月 八日 西五陵으로 遷葬시켰다. 外棺안에 內棺을 安置시켰으나 懷墓와 달리 겹 外棺은 없이 灰槨을 만들었다. (圖2)

③ 서울 西大門區 大甕洞에서 宅地造成中에 發見된 灰槨墓이다. 槨의 바닥과 測壁은 灰로 되었으나 槨 위에는 板木으로 덮여 씌우고 위에 두텁게 灰를 다져 두고 있었다. (圖3)

遺骸의 狀態가 完全하였고 灰槨 위에서 「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勇 豊壤趙公之墓 諱仁輔字宅宗○頤」의 土製墓誌가 나왔다.

④ 石槨墓로서 槨內部 下足部에서 銅製의 수저 한 벌과 破器가 된 粉靑磁器 4點이 出土되었다.

崔淳厚「溫寧君墓 出土의 粉靑磁器」美術資料 第六號(一九六一)



圖 1：坡平尹氏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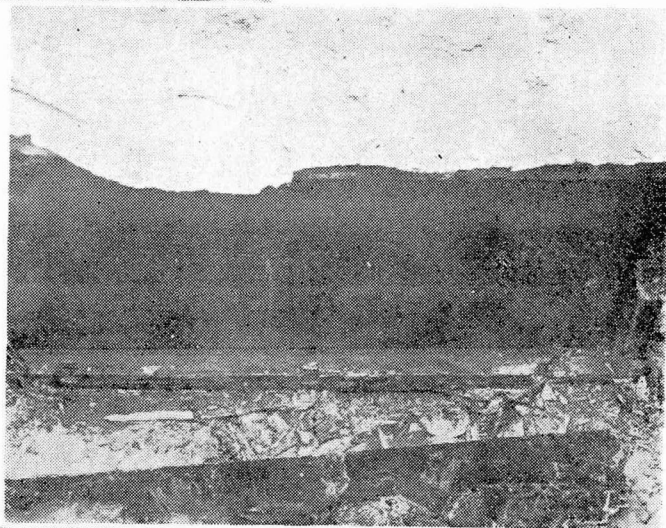


圖 2：啖嬪 全義李氏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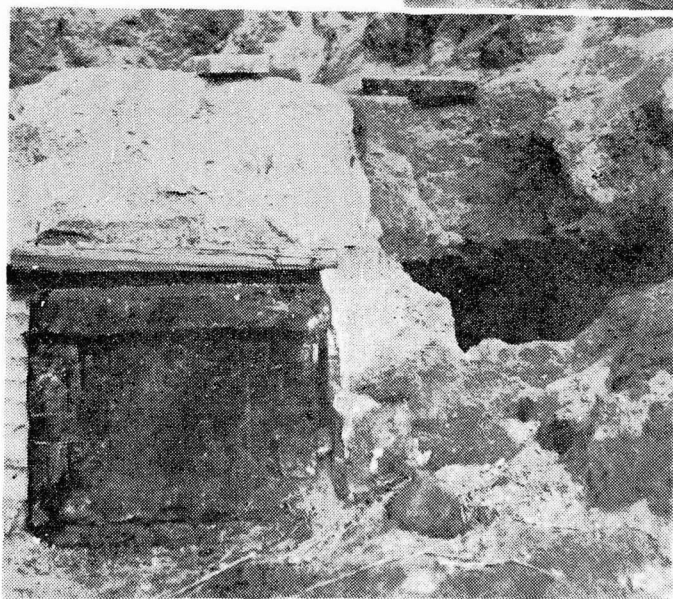


圖 3：趙仁輔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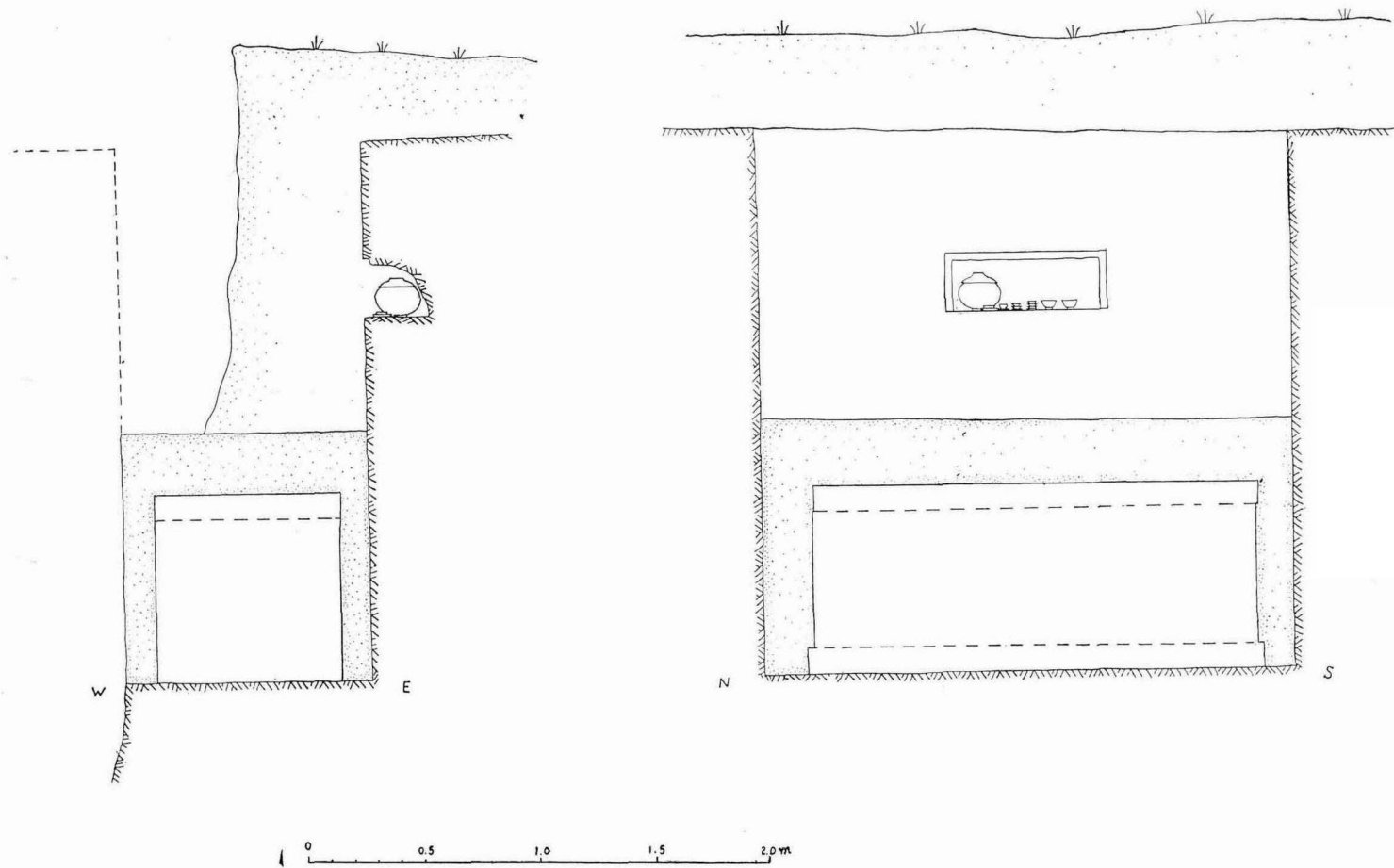


圖 4：廣州倉谷里墳墓斷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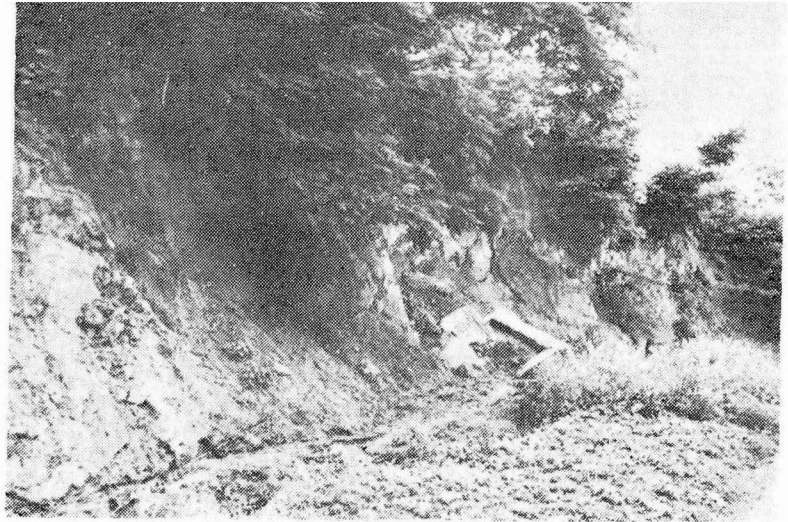


圖 5 : 調查現場全景(西北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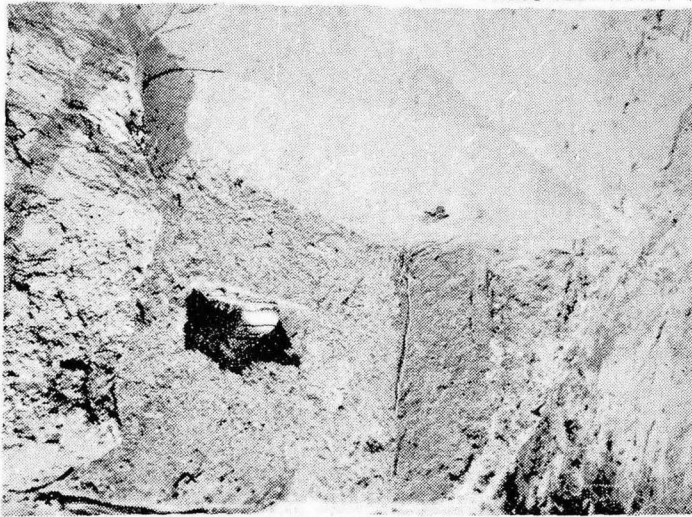


圖 6 : 土壇壁과 副塚의 露出



圖 7 : 副葬品の 出土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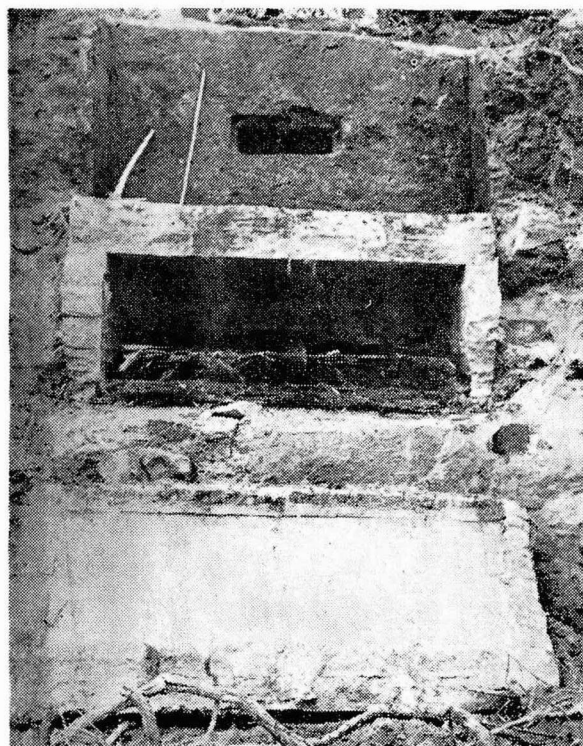


圖 8：灰槨內部的 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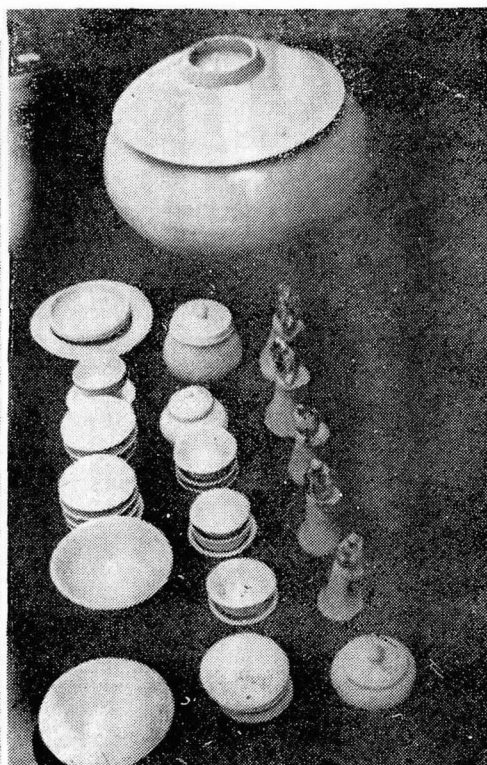


圖 9：出土副葬品一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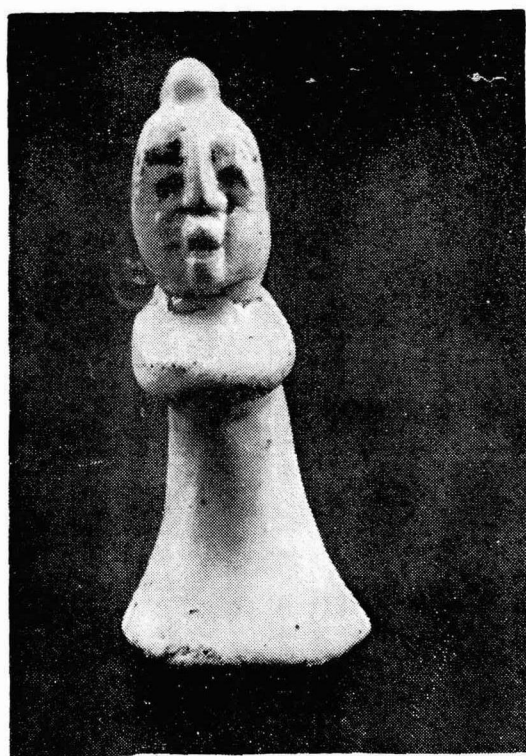


圖 10：男 偶



圖 11：女 偶